

# 부부폭력의 실태와 정책과제

Marital Violence: Current Status and Policy Tasks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부부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정부차원의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가 2004년에 이어 2007년에 실시되었는데, 부부폭력발생률은 동 기간에 44.6%에서 40.3%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

2007년도 부부폭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폭력은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방임 19.6%, 신체적 폭력 11.6%, 성학대 10.5%, 경제적 폭력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내의 남편에 대한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등은 주로 남편의 폭력행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의 속성상 더욱 빈번히 발생되고 보다 심각해진다는 점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피해자 가정 보호, 가해자 격리체계로의 제도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폭력의 위해성과 후유증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셋째, 피해자 사례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폭력후유증의 조기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을 강화한다. 다섯째, 폭력의 속성을 감안하여 상습적 부부폭력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 1. 서론

가정은 사랑과 친밀감, 애정적 유대의 장(場)이다. 그렇지만 가족원간의 활동영역에 대한 침해가 잦고 연령 및 성에 따른 종적인 관계에 기인되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다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결혼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된 부부는 가족부양, 가족생활,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등의 영역에서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음이 사실이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경

험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쇠퇴, 핵가족화 현상,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남성중심주의 가치관의 잔존 등은 한국사회에서 부부폭력의 심각성이 그 어느 사회에서보다도 높은 경향을 가진다고 하겠다.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1980년대부터이다. 초기에는 주로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여성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정폭력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면서 정부는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법’과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어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립이 본격 추진되었다.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372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9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16개소 등에 약 2,6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부부폭력, 특히 남편의 아내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아내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내의 남편폭력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에 공식적으로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고, 이어서 2007년에 두 번째 전국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부부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본 고에서는 부부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2004년과 2007년의 부부폭력 발생률을 비교하여 변화를 설명하며, 이어서 2007년 실태조사 자료<sup>1)</sup>에 기초하여 발생원인, 피해자 대응방식, 후유증, 정책육구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부부폭력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

## 2. 부부폭력의 개념과 유형

부부폭력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신체적·경제적 학대행위, 방임 및 유기, 성학대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조사에서는 2004년 조사와 달리 경제적 폭력과 방임 및 유기를 포함하였다. 특히, Straus의 CTS1(1979; 1990)에 상해개념을 보완한 39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 중에서 17가지 유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신체적 폭력의 7가지 행위는 상해가능성에 따라 ‘경한’ 신체적 폭력과 ‘중한’ 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Straus, 1979).<sup>2)</sup> 경한 신체적 폭력은 2가지 행위로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등이고, 중한 신체적 폭력은 배우자의 어깨나 목을 짊 움켜잡는 행위,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배우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를 물건(혁명,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이다.

표 1. 부부폭력의 유형 및 개별행위

| 부부폭력의 유형 | 부부폭력의 개별행위   |  |
|----------|--|--|
|          | 2004년 조사   | 2007년 조사   |
| 정서적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li> <li>•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li> <li>• 때리려고 위협을 하였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li> <li>•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li> <li>•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li> </ul>   |
| 신체적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li> <li>• 세계 밀쳤다</li> <li>•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li> <li>•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li> <li>• 물건(혁명,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li> <li>•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li> <li>•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였다</li> <li>•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았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는 행위</li> <li>•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li> <li>•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li> <li>• 배우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li> <li>•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li> <li>• 배우자를 물건(혁명,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li> <li>•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li> </ul> |
| 경제적 폭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li> <li>• 재산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li> <li>•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li> </ul>  |
| 방임 및 유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li> <li>•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li> </ul>   |
| 성학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li> <li>•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li> <li>•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li> </ul>  |

자료: 1) 변화순 외(2005), 2004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 김승권 외(2008),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부부폭력 발생률

### 1) 전체 및 폭력유형별 발생률

부부폭력 발생률은 현재 부부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이혼·별거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사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발생한 모든 유형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부부는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의 44.6%에 비하여 다소 낮아진 것이다. 특히, 경제적 폭력과 방임을 포함한 2007년 조사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은 정부의 가정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부부간에 폭력이 발생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1)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는 2007년 8월 6일~10월 29일(80일간) 전국의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9,847가구에 대하여 조사완료 됨.  
2)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표 2. 지난 1년간 부부폭력발생률: 2004년 및 2007년 비교

(단위: %, 명)

| 구 분   | 전체 폭력 발생률 | 폭력유형별 발생률 |        |       |           |        |      |      | (분석 대상수) |
|-------|-----------|-----------|--------|-------|-----------|--------|------|------|----------|
|       |           | 정서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           | 경제적 폭력 | 방임   | 성학대  |          |
|       |           |           | 경한 폭력  | 중한 폭력 | (경한+중한)폭력 |        |      |      |          |
| 2004년 | 44.6      | 42.1      | 15.2   | 4.8   | 15.7      | -      | -    | 7.1  | (5,916)  |
| 2007년 | 40.3      | 33.1      | 11.1   | 4.8   | 11.6      | 4.1    | 19.6 | 10.5 | (6,561)  |

자료: <표 1>과 동일

2004년 조사와 2007년 조사에서 모두 남편의 아내 폭력발생률은 아내의 남편 폭력발생률보다 높았고, 부부간의 상호폭력발생률<sup>3)</sup>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4년에 비하여 아내폭력, 남편 폭력, 상호폭력 모두 2007년에는 유사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의 폭력발생률을 살펴보면, 아내 폭력발생률은 33.1%로 남편 폭력발생률 27.1%보다 6.0%p 높았으며, 상호폭력발생률 19.9%를 제외한 아내 폭력발생률은 13.2%, 남편 폭력발생률은 7.2%이었다.

또한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를 중심으로 2004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부부간의 신체적 폭력은 2004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고('04년 15.7%→'07년 11.6%),<sup>4)</sup> 부부간의 성학대는 2004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되었다('04년 7.1%→'07년 10.5%).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부부 당사자의 강력대응과 법적

책임이 증대되었고, 부부간의 성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7년 조사자료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부폭력은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방임 19.6%, 신체적 폭력 11.6%, 성학대 10.5%, 경제적 폭력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남편이 상호폭력을 가한 경우가 정서적 폭력 15.9%, 방임 8.5%, 신체적 폭력 4.2%, 성학대 2.6%, 경제적 폭력 1.0% 등이었으며, 상호폭력을 제외한 폭력발생률은 정서적 폭력이 아내폭력 10.5%, 남편 폭력 6.6%, 신체적 폭력은 아내폭력 5.2%, 남편 폭력 2.2%, 경제적 폭력은 아내폭력 2.2%, 남편 폭력 0.9%, 아내방임 5.8%, 남편방임 5.3%, 아내 성학대 6.9%, 남편 성학대 1.0% 등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방어측면의 폭력대항도 상당히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아내의 남편에 대한 신체적 폭력, 경제적

3) 상호폭력은 배우자가 폭력을 가했을 때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른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4) 다소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내폭력 중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이 미국 28.5%, 뉴질랜드 21%, 방글라데시 19%, 이집트 16%, 니카라과 12%, 몰도바 7%, 스위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6%, 호주 3% 등이었음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아내폭력 발생률이 어느 비교 국가보다도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음(U.S. Department of Justice, "Violence Against Women: Estimates from the Redesigned Survey",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August 1995; The Center for Health and Gender Equity,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Population Reports, Population Reports, Vol. 27, No. 4, 1999).

표 3. 지난 1년간 아내폭력 및 남편폭력 발생률: 2004년 및 2007년 비교

(단위: %)

| 구 분   | 전체 폭력 발생률 | 폭력유형별 발생률 |        |       |            |        |     |      |     |
|-------|-----------|-----------|--------|-------|------------|--------|-----|------|-----|
|       |           | 정서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            | 경제적 폭력 | 방임  | 성학대  |     |
|       |           |           | 경한 폭력  | 중한 폭력 | (경한+중한) 폭력 |        |     |      |     |
| 2004년 | 남편의 아내폭력  | 37.3      | 34.1   | 12.6  | 3.9        | 13.2   | -   | -    | 6.4 |
|       | 아내의 남편폭력  | 32.6      | 31.2   | 8.1   | 2.1        | 8.5    | -   | -    | 1.8 |
|       | 상호폭력      | 25.3      | 23.2   | 5.4   | 1.1        | 5.9    | -   | -    | 1.0 |
| 2007년 | 남편의 아내폭력  | 33.1      | 26.4   | 7.7   | 4.5        | 9.4    | 3.2 | 14.3 | 9.5 |
|       | 아내의 남편폭력  | 27.1      | 22.5   | 5.3   | 2.6        | 6.4    | 1.9 | 13.8 | 3.6 |
|       | 상호폭력      | 19.9      | 15.9   | 1.9   | 2.3        | 4.2    | 1.0 | 8.5  | 2.6 |

자료: <표 1>과 동일

폭력, 성학대 등은 주로 남편의 폭력행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력 14.0%, 남편폭력 13.5%),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아내폭력 9.9%, 남편폭력 5.1%) 등의 순이었다.

2) 개별행위별 부부폭력 인식 및 발생률

200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개별 폭력행위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높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권신장과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여성운동의 강화, 그리고 여성부의 폭력대응정책의 강화에 기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정부,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그리고 민간 여성단체의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노력의 성과일 것이다.

개별폭력 행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이었고(아내폭력 25.0%, 남편폭력 21.7%), 다음은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아내폭

4.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부부폭력 발생원인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이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학자,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여성학자 등 전공영역에 따라 폭력원인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르다. 이는 부부폭력이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되고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의 발생의 원인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론은 Gelles & Straus가 제시한 정신병리학적 이론, 사회심리학적 이론, 사회문화적 차원의 이론 등이라 하겠다.<sup>5)</sup>

5) Straus, M. A. and R. Gelles. (1986). Societal Change and Change in Family Violence from 1975 to 1985 As Revealed by Two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8.

표 4. 가정폭력행위별 인식을 및 지난 1년간 폭력발생률 비교

(단위: %, 명)

| 폭력행위                            | 인식률  |      | 발생률      |          |
|---------------------------------|------|------|----------|----------|
|                                 | 아내   | 남편   | 남편의 아내폭력 | 아내의 남편폭력 |
|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 82.6 | 76.1 | 25.0     | 21.7     |
|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 89.8 | 85.3 | 9.9      | 5.1      |
|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 91.3 | 86.2 | 5.8      | 3.7      |
|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는 행위              | 93.4 | 89.8 | 3.5      | 1.9      |
|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 97.5 | 95.7 | 2.5      | 1.6      |
| 목을 조르는 행위                       | 99.1 | 96.8 | 1.0      | 0.5      |
|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99.1 | 96.7 | 1.0      | 0.5      |
|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 95.9 | 93.3 | 6.6      | 4.3      |
| 학대,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 -    | -    | 0.7      | 0.3      |
|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 -    | -    | 1.0      | 0.5      |
|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 67.1 | 58.2 | 2.2      | 0.7      |
| 배우자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 74.6 | 63.2 | 0.9      | 0.5      |
|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 72.6 | 61.8 | 1.7      | 1.2      |
|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 68.9 | 59.7 | 14.0     | 13.5     |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83.4 | 79.5 | 1.0      | 0.6      |
|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 74.0 | 66.2 | 9.1      | 3.3      |
|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 76.5 | 69.2 | 2.8      | 1.1      |

자료: 김승권 외(2008).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조사에 근거하여 부부폭력의 발생원인을 살펴보았다. 남편의 아내폭력과 아내의 남편폭력 모두 '사소한 말다툼·잘못', '성격차이', '상호 이해부족'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한 말다툼·잘못'은 아내폭력의 24.1%, 남편폭력의 28.0%이었고, '성격차이'는 아내폭력의 21.5%, 남편폭력의 23.7%, 그리고 '상호 이해부족'은 아내폭력의 14.6%, 남편폭력의 15.6%를 차지하였다. 아내의 남편폭력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남편의 아내폭력에 나타나는 발생원인으로는 '배우자의 술버릇'과 '자격지심'이 각각 8.0%, 2.7% 있었다. 그 외

발생원인으로는 '경제문제', '배우자의 오해', '본인의 잘못', '시가·처가문제', '이성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 5. 부부폭력의 대응방식

부부폭력 발생시 대처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부부가 모두 '함께 폭력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에 근거한 부부폭력 발생시의 대응방식을 살펴보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내의 42.4%가 함께 폭력을 행

표 5. 지난 1년간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단위: %, 명)

| 구분             | (남편의) 아내폭력   | (아내의) 남편폭력   |
|----------------|--------------|--------------|
| 특별한 이유 없음      | 4.8          | 3.4          |
| 성격차이           | 21.5         | 23.7         |
| 배우자의 오해        | 3.1          | 5.0          |
| 본인의 잘못         | 1.9          | 5.6          |
| 본인 및 배우자의 이성문제 | 1.7          | 1.8          |
| 경제문제           | 8.8          | 9.5          |
| 자격지심           | 2.7          | -            |
| 상호이해부족         | 14.6         | 15.6         |
| 배우자의 술버릇       | 8.0          | -            |
| 사소한 말다툼·잘못     | 24.1         | 28.0         |
| 시가·처가문제        | 3.1          | 1.3          |
| 자녀문제           | 3.0          | 2.4          |
| 기타             | 2.8          | 3.7          |
| 계(수)           | 100.0(1,700) | 100.0(1,005) |

주: 아내폭력의 기타에는 실직 등 사회불만, 폭력의 맞대응 등이 포함되었으며, 남편폭력의 기타에는 실직 등 사회불만, 자격지심, 배우자의 술버릇, 사소한 말다툼·잘못, 폭력의 맞대응 등이 포함됨.

자료: <표 4>와 동일

처방식과 마찬가지로 부부폭력 발생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부부가 모두 '함께 폭력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즉, 부부간에 상호폭력이 많이 발생됨을 의미한다.

표 6.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sup>1)</sup>

(단위: %)

| 신체적 폭력의 후유증 | 남편의 아내폭력     | 아내의 남편폭력     |
|-------------|--------------|--------------|
| 함께 폭력행사     | 42.4         | 43.5         |
| 무조건 피함      | 7.6          | 7.3          |
| 주위에 도움요청    | 0.8          | 0.3          |
| 끝날 때 까지 참음  | 11.5         | 6.1          |
| 대응하지 않음     | 36.5         | 10.8         |
| 기타          | 1.2          | 2.0          |
| 계(수)        | 100.0(1,702) | 100.0(1,004) |

자료: <표 4>와 동일

### 6. 부부폭력의 개인적 후유증과 가족생활의 변화

폭력은 그 속성상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족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주게 된다. 특히,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2007년 조사결과에 의하여 부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후유증과 가족생활의 변화를 살펴본다.

#### 1) 폭력의 개인적 후유증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75.0%

는 신체적으로 별 증상이 없었으며, 나타난 대표적인 신체적 증상은 두통으로 머리가 멍함이었다. 그 외에도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팔, 다리 부러지는 등의 골절상, 고막이 터지고 이가 부러짐, 실명 등 증상도 있었다. 즉, 굉장히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약 0.4%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젊은 층의 아내보다는 중장년층 피해아내에게서,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아내보다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아내에게서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김승권 외, 2008).<sup>6)</sup>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86.6%는 신체적으로 별 증상이 없었으며, 나타난 대표적인 신체적 증상은 두통으로 머리가 멍함이었다. 그 외에도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팔, 다리 부러지는 등의 골절상, 고막이 터지고 이가 부러짐도 있었다. 즉, 굉장히 심각한 신체

적 증상은 약 0.2% 수준으로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경험하고 있는 수준의 절반이었다. 매우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장년층 피해남편보다는 젊은 층과 중년층 남편에게서, 대학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남편보다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남편에게서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64.0%는 정신적으로 별 증상이 없었으며, 36.0%는 정신적 증상이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증상보다 높은 비율로서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의 행위가 많이 있고, 가벼운 신체적 폭력에서도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나타난 대표적인 정신적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로 무려 19.9%나 되었고, 매사에 불안, 우울 8.1%, 학대한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 2.8%, 죽고 싶다는 생각 2.2%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0.9%), 사람만나는 것을 기피(0.6%),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0.2%) 등도 나타났다.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79.9%는 정신적으로 별 증상이 없었으며, 20.1%는 정신적 증상이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증상보다 높은 비율로서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의 행위가 많이 있고, 가벼운 신체적 폭력에서도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이며, 폭력피해 아내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이다. 나타난 대표적인 정신적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로 15.0%나 되었고, 매

사에 불안, 우울 2.5%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0.9%),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0.4%), 사람만나는 것을 기피(0.6%),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0.3%), 학대한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0.2%) 등도 나타났다.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 중 가족생활 변화를 경험한 비율은 2.2%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한 경우가 0.9%이었고, 아내와 별거중 0.8%,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 0.2%, 그리고 보호시설 입소 0.1% 등이었다. 여기서

보호시설 입소는 남성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 전국에 1개소만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입소하였다기 보다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시설에 입소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7. 부부폭력의 신체적 증상**  
(단위: %, 명)

| 신체적 폭력의 후유증           | 남편의 아내폭력     | 아내의 남편폭력   |
|-----------------------|--------------|------------|
| 별 증상 없음               | 75.0         | 86.6       |
| 증상있음                  | 25.0         | 13.4       |
| - 두통으로 머리가 멍함         | 20.1         | 11.9       |
| -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 3.4          | 1.1        |
| - 팔, 다리 부러지는 등의 골절상   | 0.2          | 0.1        |
| - 고막이 터지고 이가 부러짐      | 0.1          | 0.1        |
| - 실명 등 증상 기타          | 0.1          | -          |
| - 기타                  | 1.0          | 0.1        |
| 계(수)                  | 100.0(1,699) | 100.0(996) |

자료: <표 4>와 동일

**표 8. 부부폭력의 정신적 증상**  
(단위: %, 명)

| 정신적 폭력의 후유증            | 남편의 아내폭력     | 아내의 남편폭력   |
|------------------------|--------------|------------|
| 별 증상 없음                | 64.0         | 79.9       |
| 증상있음                   | 36.0         | 20.1       |
| -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 19.9         | 15.0       |
| -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      | 0.2          | 0.3        |
| -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       | 0.9          | 0.4        |
| - 학대한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   | 2.8          | 0.2        |
| - 매사에 불안, 우울           | 8.1          | 2.5        |
| - 죽고 싶다는 생각            | 2.2          | 0.9        |
| - 사람만나는 것을 기피          | 0.6          | 0.6        |
| - 기타                   | 1.2          | 0.2        |
| 계(수)                   | 100.0(1,697) | 100.0(994) |

자료: <표 4>와 동일

2) 폭력후 가족생활의 변화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아내와 아내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족생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폭력을 당한 아내의 96.8%, 폭력을 당한 남편의 97.8%가 동거여부에서의 가족생활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고, 그 외의 경우는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배우자와 별거중이거나, 심지어는 이혼을 한 경우도 발생하여 미미하나마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폭력으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단위: %, 명)

| 정신적 폭력의 후유증 | 남편의 아내폭력     | 아내의 남편폭력   |
|-------------|--------------|------------|
| 가족과 떨어져 살   | 0.5          | 0.2        |
| 남편과 별거중     | 1.0          | 0.8        |
| 이혼          | 1.5          | 0.9        |
| 보호시설 입소     | -            | 0.1        |
| 변화 없음       | 96.8         | 97.8       |
| 기타          | 0.2          | 0.2        |
| 계(수)        | 100.0(1,695) | 100.0(994) |

자료: <표 4>와 동일

7. 부부폭력 대응서비스 욕구

최근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부부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욕구를 살펴본다. 먼저 가정폭력 예

6) 김승권 외(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방정책으로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제시하는 비율은 여성 25.6%, 남성 24.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여성 22.9%, 남성 21.4%), '가정 폭력 예방의 홍보·계몽 강화'(여성 17.7%, 남성 21.6%),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여성 15.6%, 남성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소수의견으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 '상담서비스', '폭력허용적 사회문화 개선'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표 10.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예방정책 유형                  | 아내               | 남편               |
|--------------------------|------------------|------------------|
|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 25.6             | 24.3             |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계몽 강화     | 17.7             | 21.6             |
| 폭력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           | 4.5              | 4.7              |
|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 | 22.9             | 21.4             |
|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 15.6             | 13.1             |
| 상담서비스                    | 6.2              | 4.4              |
| 사회적 인식개선                 | 7.2              | 10.0             |
| 기타                       | 0.2              | 0.4              |
| 계수                       | 100.0<br>(6,641) | 100.0<br>(4,264) |

자료: <표 4>와 동일

가정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후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제시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24.5%, 남성의 25.6%로 나타났다. 다음은 '보호시설 확충'(여성 21.6%, 남성 20.4%),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여성 16.5%, 남성 14.2%),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여성 11.4%, 남성 8.6%) 등의 순이었다. 그 외 소수의견으로 '상담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개선', '주거시설 마련'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표 1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  
(단위: %, 명)

| 보호대책 유형           | 아내               | 남편               |
|-------------------|------------------|------------------|
| 보호시설확충            | 21.6             | 20.4             |
|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 24.5             | 25.6             |
| 상담서비스제공           | 8.7              | 9.6              |
| 사회적 인식개선          | 4.9              | 7.8              |
|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 16.5             | 14.2             |
| 주거시설 마련           | 4.9              | 3.9              |
|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 11.4             | 8.6              |
| 교육서비스 제공          | 1.7              | 2.5              |
| 자조모임 지원           | 0.7              | 0.8              |
| 대안학교 제공           | 0.7              | 1.0              |
|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 인권교육 | 2.7              | 3.5              |
| 가정폭력법에 장애인조항 강화   | 0.4              | 0.5              |
| 장애인 전문상담소 및 쉼터 확충 | 1.1              | 1.5              |
| 기타                | 0.1              | 0.2              |
| 계수                | 100.0<br>(6,641) | 100.0<br>(4,255) |

자료: <표 4>와 동일

**8. 결론 및 정책제언**

부부폭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사회적 관심 증대는 폭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고 발생률의 증가를 저지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생이 감소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의 부부간 폭력수준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폭력의 속성상 더욱 빈번히 발생되고 보다 심각해진다는 점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더군다나 인간학습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에서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폭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행위자)가 격리되거나 처벌을 받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폭력피해자가 집을 떠나 보호시설(쉼터 등) 또는 친인척 집 등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음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뿐만 아니라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아내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의 자녀폭력 발생률은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남편의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발생을 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을 목격하고 성장한 아동들은 성인이 된 후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Walker, 1979).<sup>7)</sup> 이는 폭력이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대를 이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부폭력의 실태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시한다.

첫째, '피해자 가정보호, 가해자 격리체계'로

의 제도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부부폭력 대응책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계별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08~'09년 기간에는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법개정을 추진하며, 필요한 '가해자 치료감호시설'을 확충토록 한다. 이어서 2010년부터 '피해자 격리보호'인 현행 체제를 '피해자의 가정보호, 가해자의 격리체계'로 전면 전환토록 한다.

둘째,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폭력의 위해성과 후유증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예방정책으로는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 등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측면의 폭력후유증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이수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폭력의 속성을 감안하여 상습적 부부폭력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특히, 누범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본문**

7) Walker, Lenore E. (1979). The Battered Women. New York: Harper & Row.